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본격화… 군공항 이전 ‘최대 과제’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규모 조성 군사시설 이전 지연시 계획 차질 국방부·국토부 등 협의체 가동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업 성패의 핵심 열쇠인 제1전투비행단과 주한미군 시설 이전 협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30년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군사시설 이전이 지연될 경우 전체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남권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공장 4기)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부지가 광주 군공항(826만㎡·250만 평)으로 전격 결정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올해 말 또는 2027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인프라 구축,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와 행정 중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뉴시스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가동하고, 군공항 내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에 우선적으로 반도체 공장 1기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활용을 위한 청사진은 나왔으나, 제1전투비행단과 한·미 공동운영기지의 이전 없이는 첫 삽도 뜨기 어렵다. 전투기 이착륙이 지속되고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을 위한 시설이 남아있을 경우,

군사보호시설 접근 제한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묶여 어떠한 개발 행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군공항의 완전한 기능 이전이 반도체 공장 설립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연내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 다. 국방부는 국토부, 행안부, 무안군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 및 선정위원회

를 이달 중 개최해 '이전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이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후 3개월 만이다. 이후 1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 공고, 10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난제인 미 공군 시설 이전 협의도 시작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역시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 군공항은 미군이 상주하진 않지만 유사시 작전이 전개되는 공동운영기지로, 미군 전용구역만 74만2000㎡(22만 평)에 달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미군 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 만큼, 2030년 양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이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충남도, WYD 앞두고 교황 방문 추진

(세계청년대회)

유홍식 추기경에 협조 요청 국제 성지 도약 기대

충남도가 내년 세계청년대회(WYD) 기간 교황 레오 14세의 충남 방문을 위해 직접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2일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열린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 집전 미사에 참례한 뒤, 한담 자리에서 "해미국제성지를 비롯한 충남의 천주교 성지들은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이자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찾는 순례 거점"이라며 "세계청년대회 기간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청년 순례자들과 함께 교황님

을 충남에서 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여름 휴가를 맞아 귀국해 마련한 자리로, 박 지사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과 신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추기경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천주교 대전교구장을 지낸 뒤 2021년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됐다. 대전교구 관할 성지인 해미국제성지와도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그냥드림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톡톡'

해남군, 6개월간 물품 지원 948건

해남군 그냥드림사업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냥드림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식료품 등 지원이 필요한 개인 이용자에게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특히 해남군은 해남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14개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총 15개소에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개월여 간 물품 지원 948건, 상담 480건, 복지서

비스 연계 251건에 이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의 읍면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주민 밀착형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워크숍을 통해 읍면형 모델로 사례 발표를 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먹거리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의 발굴과 민관 협력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왔다.

/해남(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5개사 선정

인증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산시가 13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힘써 온 지역기업 5개사를 '2026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업은 금오기전, 소셀빈, 씨넷, 아이큐랩, 한미유압기계 등으로, 총 23개 신청 기업 중에 서류평가, 현장평가, 면접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청년고용 확대와 우수한 복지제도,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에 앞장선 기업들로, 조선기자재, 전력반도체, 정보통신,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들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특히 부산 최초 예비유니콘 기업인 소셀빈을 비롯해 전력반도체 분야 미래산업 선도기업인 아이큐랩, 친환경 선박기자재 전문기업인 금오기전, 조선·해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인 씨넷, 선박엔진용 유압기계 전문기업인 한미유압기계가 포함돼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고루 선정됐다고 부산시는 덧붙였다.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수여, 좋은일터강화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산시는 오는 9월에는 청결기업 메가(Mega)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과 지역기업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양산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 완료

12월 개통 청신호

양산시는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운영기관인 (주)유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가 경상남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 발급으로 양산도시철도는 여객운송사업을 수행할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됐다.

운행구간별 운영 주체에 따라 면허가 각각 발급됐다. 유진메트로양산은 양산북정역~부산노포역까지 이어지는 신철사업구간 11.43km에 대한 면허를 부산교통공사는 기존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양산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양산중앙역 연결구간 0.55km에 대한 면허를 취득했다.

경남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운송사업계획, 운영인력 확보계획, 유지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를 발급했다.

양산도시철도는 내달 3일부터 10월5일까지 영업시운전을 실시한다. 실제 영업운행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차 운행의 정시성과 안전성, 시설물 연계 운영상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시운전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개통 전까지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 부산교통공사, 유진메트로양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개통 전까지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와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임체계를 확정하고, 운송사업자의 운임 신고와 운송약관수리 등 후속 행정절차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개통계획과 영업개시 일정 등을 보고하는 등 법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국립부경대

‘산업맞춤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국립부경대학교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산업맞춤형 자율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다.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대학이나 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3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년 연속 성과 평가 상위 30%에 든 기관을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올해 선정된 자율공동훈련센터는 전국 46곳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무더위 쉼터 677개 운영

포항시는 폭염 중대 경보 발령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야외 작업장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시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했다. 시는 총 677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폭염이 장기화할 때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경남도

정보보호 사이버공방전 개최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오는 14일 김해경남콘텐츠기업 지원센터에서 '2026 동남권 정보보호 사이버공방전(SECTO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울·경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인재를 발굴하고 동남권 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실전형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열린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관광명소 담은 여행 안내서 발간

경북도가 관광객들이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의 150개 관광명소와 추천코스를 담은 '경북, 시간과 풍경을 잇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강과 바다, 산과 계곡, 들녘이 어우러진 경북의 역동적인 자연환경과 불교·야·유교 문화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 대표 관광명소'는 주요 관광지들 북부, 중서부, 남부, 동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